

# 머물고 싶은 마을, 거닐고 싶은 골목길, 한옥으로 만든다 - 한옥 건축 활성화 방안과 의의

김보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사무관

## 한옥 건축으로 '기보고 싶은 마을' 만들기

대한민국 하면 비빔밥이나 불고기 같은 한식, 한국 노래(K-Pop), 한복 등도 떠오르지만 서울 북촌이나 인사동·익선동에 있는 한옥마을과 전주 한옥마을 또한 생각날 것이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같은 케이(K)-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내외 관광객은 서울 중구나 은평구의 한옥마을만이 아니라 전주 한옥마을이나 경주 황리단길 같은 지방 중소도시도 찾고 있다.

오래된 한옥이 카페나 숙소 같은 상업시설로 변모한 사례도 자주 볼 수 있다. 2024년 한국관광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한옥체험업은 2024년을 기준으로 2019년 대비 59% 증가하였다고 한다. 또한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한옥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거나 주말주택이나 별장으로 한옥을 찾기도 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 국토교통부는 한옥 건축 활성화를 바탕으로 중소도시를 육성하고, 지역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한옥 같은 지역 고유의 건축 자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이다. 또한 체류형 관광을 이끌어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는 매력적인 장소이다.

한옥 건축으로 중소도시의 성장을 이끌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한옥의 산업화·현대화·대중화를 통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본다.

## 한옥 산업 전문가 양성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건축사나 시공 전문 기능인 등을 대상으로 한옥 설계 전문가와 한옥 시공 관리자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을 추진하여 왔다. 이를 통해 총 1,606명의 전문가가 배출되었다. 전북

대, 명지대, 대한건축사협회, 건설기술교육원, 경상대, 계명대, 전남대 등이 한옥 건축 산업 전문가 양성 과정을 함께해 왔다.

또한 이 과정을 수료한 전문가는 한옥 설계 공모 당선이나 시공 공사 수주, 한옥 해외 수출 등으로 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교육과정 수료생 동창회는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한옥 설계와 시공 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전북대 한옥 설계 및 시공 과정 수료생이 설계하고 국산 목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전주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  
출처: 국토교통부(2025, <https://www.youtube.com/watch?v=4kFtfriHgs>, 검색일: 2026.3.26.)



명지대 한옥 설계 과정 수료생 작품(웅인 처인성 한옥역사교육관)  
출처: 국토교통부(2025, <https://www.youtube.com/watch?v=4kFtfriHgs>, 검색일: 2026.3.26.)

## 한옥 산업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한옥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한옥 표기를 명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건축물대장에 한옥을 별도로 표기하고 있지 않아서 건축물대장에서 주 구조부가 목구조인 건축물을 추출한 다음 항공 사진과 거리 사진으로 지붕 등의 모양을 분석하여 한옥으로 추정된 건물의 동수(棟數)를 잠정 통계로 집계해 왔다. 앞으로 건축물대장에 한옥 표기가 이뤄지면 보다 정확한 한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한옥 건축 산업 정책과 제도 마련에 기틀이 될 것이다.

아울러 2015년 12월에 제정한 「한옥 건축 기준」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2층 이상의 다층 한옥이나 상업 한옥 등 현대화된 한옥 수요도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학계 등의 지혜를 모으고 있다.

## 한옥 현대화를 위한 연구·개발

한옥은 이음과 맞춤의 결구 방식으로 이뤄져 조립과 해체가 쉽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해체 후에도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이다. 이러한 특성은 공장에서 건축물 자재를 제조하는 모듈러 건축, 탈현장 건설(Off-Site Construction: OSC)에도 적합하다.

국토교통부는 높은 건축비가 한옥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부담 가능한 한옥 건축을 지향하며 한옥 건축의 연구·개발(R&D)을 추진해 왔다. 또한 올해에는 한옥 건축 부재 규격화 및 상품화 등을 연구하는 한옥 연구·개발 기획도 검토하고 있다. 한옥 부재 규격을 정하면 한옥 건축에 규모의 경제를 이뤄갈 수 있고, 한옥 산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와 함께 한옥을 신축할 때 인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에너지 절약 계획서, 내화와 내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한옥의 산업화와 현대화가 이뤄진다면 앞으로 우리 고유 도시건축의 맛을 살리는 한옥을 대중화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한옥 등 건축자산 R&D 사업**  
(2009~2022, 국비 총 480억 5,000만원)

<b>(1단계)</b>	고품질·저비용 한옥 건축 기술 개발(2009~2013, 국비 178억원)
<b>(2단계)</b>	신한옥의 보급·확산을 위한 한옥마을과 한옥형 공공건축물 최적화 모델 개발 및 구축(2013~2016/국비 187억원, 강릉 한옥마을, 수원 한옥 기술전시관, 은평주민센터 등 5곳 실증)
<b>(3단계)</b>	10m급 대공간 한옥 설계 시공 기술 개발(2017~2021/국비 114억원, 총 162억원, 용인 역사교육관, 서울 정수초 다목적교실, 홍성 어린이체험시설 등 3곳 실증)
<b>(기획 영역)</b>	에너지 절약형 한옥 모델 개발 기획(2021.4.~2022.1., 1억 5,000만원)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한옥**

한옥은 ‘탄소를 저장하는 통조림’이라 불리는 나무, 곧 목재로 만드는 한국형 목조 건축이다. 또한 한옥과 건축자산을 철거하는 대신 보전하고 활용한다면, 철거를 통해 발생하는 철강이나 콘크리트 등 폐 건축자재도 최소화할 수 있어 탄소발자국 저감에 도울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한옥에 국산 목재를 활용하는 방안 등에 힘을 모으고 있다.

**한옥 특화 지역 명소 확충**

또한 국정과제인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

시건축 지역 명소 조성에 발맞춰 한옥마을과 같은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원하고 도시건축 디자인 품격을 높이는 시범사업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한옥 특화 지역 명소는 우수 건축자산이나 건축자산 진흥구역과도 연계하여 발굴하고자 한다.

여기서 우수 건축자산이란 건축자산 기초조사 수행한 우수 건축자산 후보 목록 중에서 경관이나 사회문화적 가치, 예술이나 역사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과 공간, 기반시설 중 지방정부에서 건축자산위원회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방치되었을 때 가치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우수 건축자산은 2026년 3월 현재 전국에 31개소가 있다. 서울 14곳, 제주 5곳, 광주 4곳, 세종 3곳, 인천 2곳, 경기·전북·전남 각 1곳 등이다. 이 중 서울특별시 북촌의 한옥청, 광주광역시 남구의 서강사,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학당 중 일부,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의 장옥진 화백 생가, 전라남도의 나주 교동 근대고택 ‘마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제주책방(고씨주택) 등이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으로 이뤄져 있다.

또한 한옥마을처럼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나 우수 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 공간 조성이 필요한 곳에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2026년 3월 기준 전국에 15개소가 있으며, 이 중 12곳이 한옥 밀집지역이다. 서울의 북촌, 익선동, 인사동, 경복궁 서측과 운현궁, 조계사 주변, 돈화문로, 제기동 한옥마을, 성북구의 선잠단지, 영등마을, 전남의 나주읍성권 전통한옥마을, 대전의 이사동 한옥 민속마을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 건축자산 진흥구역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지역	명칭			
		개소 수	등록장소		
계(개소수)		15			
서울(10)	종로	7	① 북촌 ② 돈화문로 ③ 익선 ④ 인사동 ⑤ 운현궁 주변 ⑥ 경복궁 서측 ⑦ 조계사 주변		
			성북	2	① 선잠단지 ② 영등마을
			동대문	1	① 제기동 한옥마을
대구(1)	중구	1	① 향촌동		
인천(1)	중구	1	①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대전(1)	동구	1	① 이사동(한옥 민속마을)		
전북(1)	군산	1	① 월명동 일대		
전남(1)	나주	1	① 나주 읍성권 전통한옥마을		

주: 밀집은 한옥마을 밀집지역

**한옥 건축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

아울러 한옥 건축에 대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옥 산·학·연 단지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한옥 건축주가 한옥 설계를 상담할 수 있고, 자재 제작과 유통, 한옥 시공, 한옥 건축 관련 전문 교육이나 건축주 한옥 교실, 기존 한옥의 유지·보수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한옥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건축은 공간을 짓고, 시간을 쌓는다**

건축은 공간을 짓고 시간을 쌓는 일이다. 한옥은 시

간으로 쌓아 올려 지은 공간을 더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건축자산이다. 여기서 ‘자산’이라는 낱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산이나 유물이 아니라 ‘자산’이라는 낱말을 쓴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경제적인 가치도 도모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의 한옥 건축 정책은 옛 기술을 ‘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한옥 건축 진흥은 국토 도시지역 건축 디자인의 혁신을 이끌 수 있고, 나아가 국토 균형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건축공간이 지역 매력을 높이는 거점으로 살아날 때 건축물과 공간은 우리의 자산이 되고, 지역 활성화의 밑거름이 된다.

우리가 만드는 건축자산이 우리나라에는 국토 균형성장을, 세계에는 함께 누리는 우리 동네와 우리 골목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한옥과 건축자산 진흥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문헌**

- 1 국토교통부. (2025.10.31). 전통의 맛, 오늘을 담다 - 변화하는 한옥의 이야기 | 한옥 전문인력 양성과정. <https://www.youtube.com/watch?v=4kFffriHgs>(검색일: 2026.3.26.)